

“인재가 미래다” 근로복지공단 인재개발원 ‘인재중심경영’ NEW 비전 선포

- 인공지능(AI) 인재 3단계 육성체계 도입-
- 배움과 휴식을 결합한 힐링형 교육환경 조성-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 인재개발원이 개원 15주년을 맞아 새 비전을 선포하고, ‘인재중심경영’을 기반으로 하는 인재개발 혁신에 나선다.

이번 비전 선포는 조직의 미래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로 ‘사람’을 강조하며, 공단의 교육·인사체계를 전면 혁신하는 출발점으로서 의미가 있다.

새롭게 제시된 비전은 ‘탁월한 실력, 단단한 마음, 일하는 사람을 위한 인재플랫폼’이다. AI·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는 환경에서 업무역량과 안정된 정서를 두루 갖춘 인재를 양성해 일하는 모든 사람의 행복에 기여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공단은 인재중심경영 추진을 위해 지난해 5월 인재경영국을 신설하고, 올해 1월에는 인재개발원장을 본부장급으로 격상하는 등 전략적 인적자원 관리(HRM) 기반을 강화해왔다.

공단의 교육방식도 대대적으로 개편된다. AI 역량 교육을 ▲전직원 대상 기초 교육 ▲실무자 중심 심화 교육 ▲관리자 중심 리더 교육 등 3단계로 세분화해 운영하고, 직무교육은 20분 이내 모듈형 콘텐츠로 제작해 필요한 내용을 즉시 학습할 수 있도록 한다. 찾아가는 현장 직무교육도 확대해 직원들의 업무 전문성을 효과적으로 높일 계획이다.

이번 개편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힐링형 교육’이다. 공단은 모든 집합교육 과정에 휴식과 심리회복 프로그램을 결합해 배움과 회복이 함께 이뤄지는 교육환경을 조성한다.

이는 공공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높아지면서 현장에서 이를 수행하는 직원들의 업무 부담과 피로도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반영한 것이다. 공단은 비움(Healing)을 통한 채움(Learning)의 선순환 구조를 통해 직원들이 지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건강한 인재육성 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교육 혁신은 인사제도 개편과도 연결된다. 공단은 역량 중심 승진제도 개편을 통해 교육과 평가, 승진이 연계되는 직무 중심 인사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박종길 이사장은 “공단은 1만 명이 넘는 직원이 노동자의 복지를 위한 많은 사업을 수행하는 만큼 다양한 전문성이 필수적”이라며 “AI 기반 교육과 힐링 프로그램 등을 통해 교육 품질을 높이고 노동복지 정책을 실현하는 전문가를 양성해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다”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인재기획부	책임자	부 장	홍창표 (052-704-7051)
		담당자	팀 장	권오혁 (052-704-7636)
	인재개발원 교육연수부	책임자	부 장	최승경 (043-539-5513)
		담당자	팀 장	김성란 (043-539-5568)

